

## ‘캠핑업계 명품’ 헬리녹스 日 이어 美·佛시장 뚫는다

의자 ‘체어원’ 비싸도 불티  
올 매출 1000억 돌파할 듯

포르쉐, 나이키, 슈프림, 디즈니, 루브르 박물관, 파리생제르맹..

분야별 내로라하는 해외 브랜드가 “협업하자”며 앞다퉀 먼저 손을 내민 국내 중소기업이 있다. 하이브의 제안으로 방탄소년단(BTS)과도 두 차례나 협업했다. 텐트폴 세계 1위 기업인 동아알루미늄 자회사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모회사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캠핑용품 전문기업 헬리녹스가 주인공이다.

주요 협업 대상은 헬리녹스의 대표 제품인 캠핑용 의자 ‘체어원’이다. 무게가 경쟁사 제품의 10분의 1 수준인 900g으로 가벼운 데 비해 145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접이식 의자다. 고무 줄로 연결된 알루미늄폴로 제작돼 설치와 해체가 간편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협업하지 않은 일반 제품 가격이 경쟁사 제품보다 30% 비싸지만 나오는 제품은 가격 차이가 훨씬 크지만 재판매시장에서 네다섯 배 웃돈이 얹어져 판매될 정도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캠핑족 사이에서 ‘명품’으로 통하는 배경이다. 100% 재생원사만 고집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라영환 헬리녹스 대표는 “처음엔 주



문자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시작하는 제안이 많았는데 내키지 않았다”며 “품질을 믿고 헬리녹스 자체 브랜드를 믿고 나간 게 세계 시장에서 결국 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인기에도 힘입어 작년 매출은 77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어났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지 11년 만이다.

라 대표는 “내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와 프랑스 파리에 직영 매장인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센터(HCC)’를 열 것”이라며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내에선 서울 한남동 본사와 부산 해운대에만 직영 매장을 두고 있다. 해외에선 올해 5월 일본 도쿄에 첫 번째 직영 매장을 열었다. 온오프라인 캠핑 유통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형창 기자

## 씨엔알리서치 “연내 美 임상대행 시장 진출”

국내 ‘1호’ CRO 기업 비전

현지 지사 세워 프로젝트 수주  
자체 플랫폼으로 데이터 표준화

윤문태 대표 “글로벌화 승부수  
해외 매출 비중 30%로 높일 것”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가 서울 강남 본사에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최혁 기자

국내 1호 임상시험수탁(CRO) 기업인 씨엔알리서치가 연내 첫 미국 지사를 세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임상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1위 넘어 글로벌 ‘공략’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는 최근 “해외 CRO를 인수합병(M&A)하기에 앞서 현지에 지사를 먼저 세우는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며 “미국뿐 아니라 태국에도 연말까지 지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프로젝트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RO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기업이다. 환자 모집, 투약뿐 아니라 규제당국 승인을 위한 절차도 맡는다. 대부분 임상시험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외국계 CRO

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씨엔알리서치는 이런 ‘선천적’ 한계를 한국 기업 특유의 작업 속도와 근면성, 유연성으로 극복해 수주 계약을 따내고 있는 업력 25년의 토종 CRO다.

씨엔알리서치는 아시아의 임상 허브인 중국(2010년)과 싱가포르(2012년)에 현지 지사를 세우며 글로벌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제약·바이오산업 최대 시장인 미국에 승부를 걸기로 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정했다. 미국 현지 CRO를 인수해 진출하려던 전략도 보류했다. 허가 당국인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네트

워크가 좋은 CRO를 1순위로 뒀지만 조건이 맞는 인수 대상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표는 “(M&A 대신) 다른 국내 기업들과 협업해 미국 현지 지사를 세울 계획”이라며 “일단 FDA와의 소통을 직접 풀어나가는 데 집중한 뒤 차츰 M&A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매출 비중 더 높일 것’

오는 10~11월에는 태국에도 현지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에 이은 두 번째 동남아시아 지사다. 윤 대표는 “최근 태국 임상시험이 더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한국보다 모집할 수 있는

환자군이 많고 비용도 절반가량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중소 바이오기업도 태국에서 임상시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엔알리서치는 올 상반기 매출 256억원(별도 기준)을 올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수주 잔액은 1483억원이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윤 대표는 “전체 매출의 10%가량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나오는데 이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표준화 작업 ‘속도’

씨엔알리서치는 질환별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앞서 ‘준비 운동’이다. 윤 대표는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며 “여러 병원, 여러 나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임상시험은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했다.

씨엔알리서치는 자체 개발한 정보기술(IT) 플랫폼 ‘아이엠트라이얼’ 특허를 취득해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국제표준에 맞게 설계해가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 2550개 ‘맞춤형 체험학습’ 골라주네

오피스

신개념 교육 플랫폼 아자스쿨

어린이가 학교·학원에서 벗어나 외부 활동을 하며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체험학습이 교육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수요자(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고 공급자(체험학습 기관)는 수요자를 찾지 못하는 공급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자스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체험학습 플랫폼이다. 경희대 교육공학 박사인 황선하 대표(사진)가 2016년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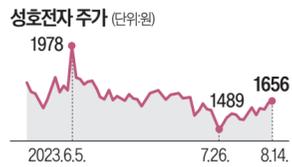


아자스쿨은 유치원생과 초·중등생에게 진로적성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체험학습을 추천한다. 지역·연령별로 2550개의 체험학습을 취급한다. 활동 후에는 보고서 작성해 학부모에게 문자로 발송한다. 자녀를 체험 교사에게 인계하고 체험학습이 끝나면 다시 집에 데려다주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도 한다. 황 대표는 “이동 전 과정을 위치 기반으로 관찰하는 안심 서비스를 구축해 신뢰를 얻었다”며 “2019년에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다동이 아빠’ 이동국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투자했다”고 14일 말했다. 월 방문자는 20만6000명이다.

강경주 기자

## ‘반기 최대 실적’ 성호전자, 이륜 전기차 썩썩

매출 936억·영업익 92억원  
인도 합작사, 충전기 시장 1위



코스닥시장 상장사 성호전자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해 연간 실적 신기록 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중국·베트남 법인이 정상화된 가운데 인도 법인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기 시작했다.

성호전자는 상반기 매출 936억원, 영업이익 9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 증가했고 영업손익은 2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두 지표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원공급장치와 콘덴서 등 주력 사업이 정상화된 가운데 서울 가산동 본사 개발이 속도를 내게 원동력이다. 박

성재 성호전자 대표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여파로 제조를 전담하는 중국 법인과 2021년 준공한 베트남 법인이 영이 힘들었다”며 “두 법인이 정상 가동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했다.

인도 자회사 IPEC도 올해부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IPEC는 성호전자가 인도에 세운 합작사로 현지 이륜 전기차 충전기 시장 1위로 최근 올라섰다. 인도 최대 이륜 전기차 업체인 올라그룹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도, 올라그룹은 현대

자동차가 3000억원 넘게 투자한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서울 본사를 지식산업센터(SH드림타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순항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작년 4월 분양이 끝난 가운데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4분기부터는 태양광용 콘덴서도 성장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한화솔루션으로부터 태양광 인버터용 콘덴서 단독 공급업체로 최근 선정됐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다. 베트남에서 10월부터 SK시그넷의 전기차 충전기 모듈을 대량 생산하기로 했다. 이 덕분에 올해 연간 매출 2000억원, 영업이익 240억원을 올려 1973년 창사 후 5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한다.

김병근 기자

## “법인세 최고세율 20%로”

중견연, 정부에 세계개편 건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등 세계 개편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견연은 지난 11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계 개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연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하고 나머지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도 과감하게 낮춰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연 상근부회장은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며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www.amaranth10.com | 대표번호 1688-5000 DOUZONE

# 비즈니스의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Amaranth 10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탄생 -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계·공유를 통해  
달라지는 플랫폼 혁신으로 이릅니다

기업의 필요에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서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도는 혁신적으로 불리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합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남비트먼트 업무시도도 절감합니다

☎ 회계관리 | 👤 HR | 📁 Groupware(UC) | 🏠 원격팀 업무관리 | 📅 CRM | 📄 오피스(문서관리)